

# 기념비성, 기존개념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 창출

## The Monumental: Discarding Given Concepts and Delivering New Meanings

건축사 / 정연근(토원건축)

대담자 / 이동연(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5월 29일

장소 / 토원건축



대담장경 (왼쪽:정연근, 오른쪽:이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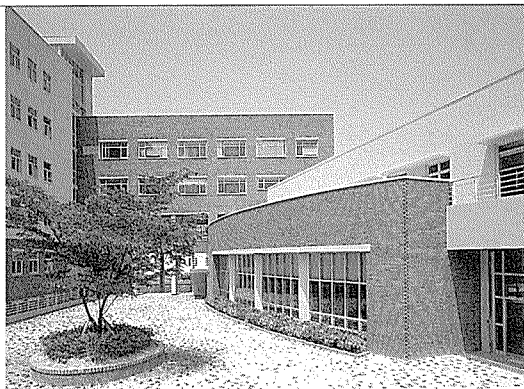
이동연\_\_\_설계개념 설정시 조각가 최만린의 “태(胎)”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영감의 순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정연근\_\_\_순간적인 영감이라기 보다 기념비성이 동기를 제공했겠지만 ‘건축’의 전형적 속성을 일탈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제가 건축을 공부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공간 미술관에서 은사님이신 조국정선생님의 건축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건축과 조각’ 이었고, 조각가이신 선생님 옆에서 최만린 교수님의 작품을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매우 유기적 이미지를 가진 조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튜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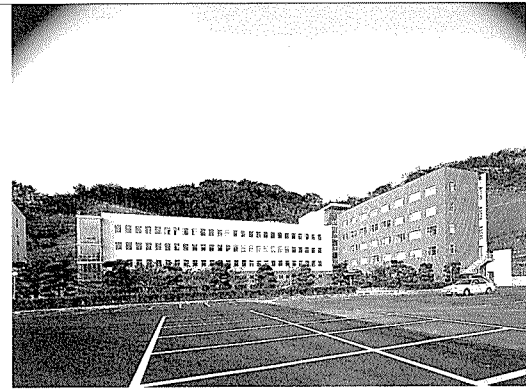
설정에서 그것이 연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동연\_\_\_그러한 영감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능, 형태, 맥락(context)으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풀어나갔는지 궁금합니다. 풀어나간 과정을 단계별로 세세히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정연근\_\_\_건물의 유형이 ‘기념관’으로 비일상적인 건축 속성을 요구했고, 홍보관, 사무실, 전시실로서 기능들이 매우 단순했지만 그 중에서 기념관으로서의 주요 프로그램이 전시공간이라 공간적 초점을 그것에 맞추었습니다. 라이트나 고르뷔제의 전시관 계획을 보면 선형의 공간을 그 요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륨



경성대 실험강의동



경성대 실험강의동

로 형상화시켜 튜브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부산의 구도심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경사지로서의 대지의 특성을 살리고, 역사와 일상의 접목 등을 위해 그 곳으로 열린 마당을 설정했고, 튜브가 형태적 단위로 얽히지기 위해서는 대지로부터 떼어놓아야 했고, 처음 목표 삼았던 볼륨에 비하면 전반적인 규모의 한계에 의해 매우 압축한 '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언** \_\_\_\_\_ 데카르트의(Cartesian) 공간, 즉 주객의 분리현상이 두드러진 회색의 공간의 극복이 현대 건축의 과제인 듯 합니다. 이 건축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데카르트적 혹은 기술중심적 공간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데카르트적 공간과 이 건축물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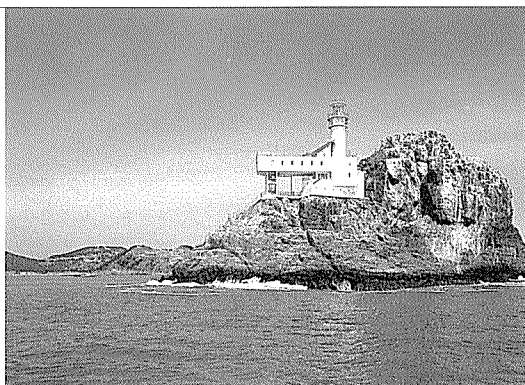
**정연근** \_\_\_\_\_ 글썩요. 저에게 데카르트적 공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어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 속에 차별화되는 요인이 잠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질문은 교수님께서 직접 읽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언** \_\_\_\_\_ 이 건물을 보고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건축경향의 애매한 절충으로 보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건축가 본인과 상기의 두 건축가와의 근원적인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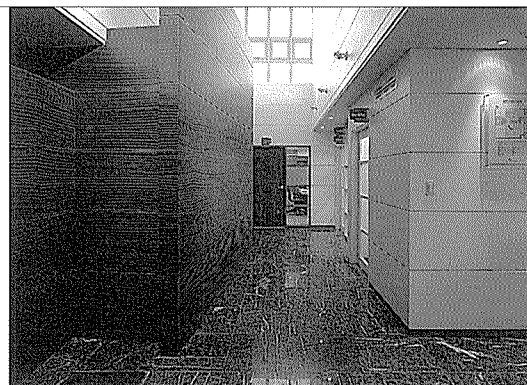
**정연근** \_\_\_\_\_ 직간접적으로 두 사람의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젠만의 스튜디오를 접했고, 로스엔젤레스에서 게리의 작품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밀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극으로 통하고 극으로 반대되는 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그야말로 극과 극을 왔다갔다 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라면 기존의 건축적 한계를 깨트리려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며 건축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겠지요. 단지 한사람은 머리로 한사람은 가슴으로 그 접근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경향에 동감합니다. 요즘은 말로 표현이 어려웠던가요. 아직 제가 하는 일을 그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현실로부터 조금씩 우리 건축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틈을 찾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동언** \_\_\_\_\_ 이 건축물에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들은 기존개념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의 창출 등입니다. 예를 들면 기념비적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성을 새롭게 해석한 느낌이 첫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건축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존의 의미의 파괴와 새로운 의미 창출에 대해 가능하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볼품없는 것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새삼 멋적은 마음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출발점부터 달리 설정했습니다. 건축의 구성 방식이나 그 요소를 달리하고, 역사와 현재의 만남의 방식을 달리 하려고 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청에



오륙도 등대



나라한의원(인테리어)

서 감독하는 관계자가 와서 앞 뒤 구분도 안되는 이런 이상한 건물이 어디 있느냐고 투덜거리더라 얘기를 현장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당선작으로 선정했던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원안과 별로 달라진 바 없는 형태를 실제로 대하고 보니 그렇게 눈에 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히려 원래의 의도보다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여느 건물에 가까워진 것이 아쉬웠는데 기존의 인식과는 그래도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공원의 북쪽에 있는 김중업선생님의 '충훈탑'을 보면 그 조형성이나 '뿌리' 그리고 장소의 성스러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그런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가진 곳들에 가 보면 그 건축적 성격이 선생님의 그것에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같이 그야말로 '성역화' 되어 그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지나치게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결국 그 의미는 다시 열어보지 않는 일상과 동떨어진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공원이 따뜻한 날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산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산에서 몇 안되는 시민들의 장소라고 보았고, 그 한 귀퉁이도 편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는 마을 풍경과 함께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기념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동언 \_\_\_\_\_ 현대 우리건축의 경향에 비추어서 이 건축물의 의미와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우리건축도 최근 10여년 동안

질과 양에 있어 다양성의 폭을 많이 넓혀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리 넓게 이해되고 있다가 보다 일부 건축가들이 고집으로 힘들게 작업을 해낸 개인적 성과라는 측면이 아직은 큰 것 같습니다. 광복기념관은 어쩌다 공개적으로 선택되었지만 그간의 체험으로 보면 심혈을 기울인(?) 컴퓨터 그래픽이나 건축주 혹은 사용자와 건축가 사이의 관계가 느슨한 설계경기의 속성 덕분에 실현되게 된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건축적 개념에 대한 일탈의 의지가 가시화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면 '규모'에 의해 튜브와 건축적 도구의 분리 등 몇 가지 시도가 계획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일탈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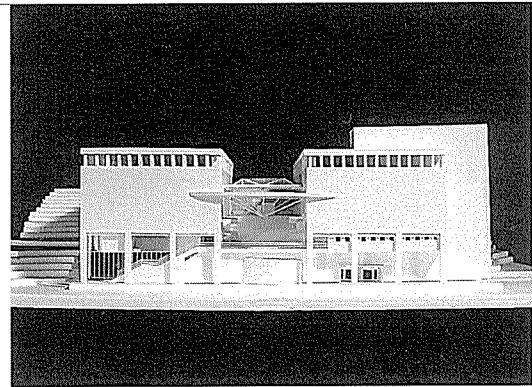
이동언 \_\_\_\_\_ 자신의 건축적 경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이 건축물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_ 저는 아직 저의 건축적 경향을 알지 못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역량의 부족과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되도록 대지와 프로그램 두 축에 충실하면서 아직은 먼저 어떤 목표나 경향을 스스로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 한계를 하나씩 두드려 보는 정도입니다.

이동언 \_\_\_\_\_ 이 건축물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한국 고유의 정서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건축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산 대림공장



부산대학교 계획안

정연근 \_\_\_\_ '한국 고유의 정서',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한국' 혹은 '우리' 라는 어휘가 아주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리 큰 공감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기념관의 부유하는 튜브로 둘러싸인 마당이 꼭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우리의 마당 혹은 정자 공간 같은 느낌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남 아시아 어느 건축가의 말처럼 전통을 강제로 설계 목표에 포용할 여유가 없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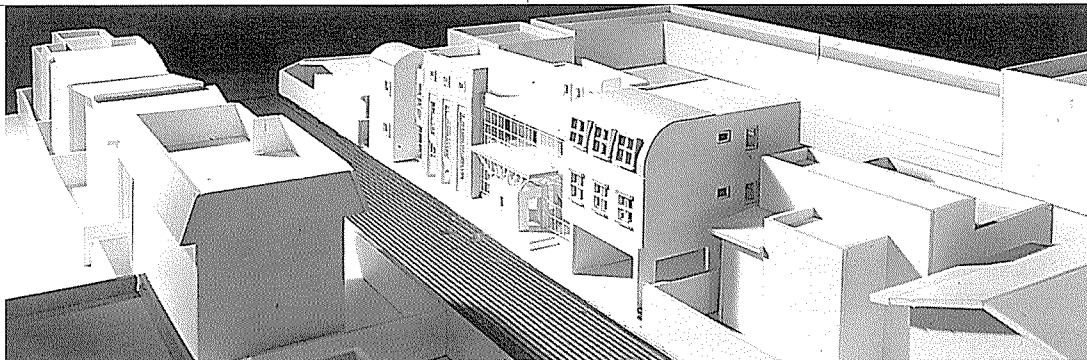
이동연 \_\_\_\_ 설계 당시에 생각했던 건축물과 완공된 후의 건축물과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근 \_\_\_\_ 솔직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시행 시기를 감안해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저의 소관을 넘어서는 것이고, 주로 외부 마감재가 노출콘크리트에서 석재 타일과 드라이비트를 혼용한 것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설계과정에서 노출콘크리트를 공부하다 보니 조형적 특성이 재료의 시공상의 특성과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석재 타일 또한 나름대로 개성있는 질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등이 빠져 노약자나 장애인 문제를 계단 기틀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대처한 것은 그리 잘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생각보다 폐쇄적으로 사용되어 마당의 깊이를 경감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충무동 그린생활시설(계획안)



대연동 영어학원 계획안